



#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1~9월 외자사용액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외자사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한 1조 38억 위안(약 196조원)이며, 이 중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사용액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외자사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7,414억 위안(약 145조원)에 달함.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사용액은 32.3% 증가하였고, 이 중 첨단기술 제조업은 48.6%, 첨단기술 서비스업은 27.9% 증가율을 보였음
- 투자국을 볼 때 독일, 한국, 일본, 영국 등의 대중 투자가 각각 114.3%, 90.7%, 39.5%, 22.3% 증가, 지역별로는 동부, 중부, 서부의 외자사용액이 각각 13.3%, 34.8%, 33.0% 증가하였음
- 한편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주로 '14차 5개년 계획' 중점 발전 산업인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등 제조업 분야의 대표적인 외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향후 중점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 건설, 투자, 생산 등 전반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용지, 에너지 효율성, 투자, 출입국 허가 등을 보장하며, 지역별 중점 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자료원 : 21세기경제보도

<https://finance.eastmoney.com/a/202210272542854988.html>

## 2 中, 1~9월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 비중 25.7%로 상승

- 올해 1~9월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안정적인 성장세이며 모니터링 중인 상품 18종 가운데 7종의 판매액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음

-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1~9월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9조 5,900억위안(약 1,871조원)이고, 이 중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6.1% 증가한 8조 2,400억 위안(약 1,609조원)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25.7%를 차지했음
- 일부 상품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약품, 금·은·주얼리,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식량·식용유·식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3%, 29.7%, 21.2%, 18.6% 증가하였음
- 동북과 중부 지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각각 13.0%, 8.9%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은 각각 9.0%p, 4.9%p 상회하였고 서부와 동부 지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각각 4.0%, 3.5% 증가하였음
- 온라인 서비스 소비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온라인 요식업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였음. 한편 농산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세를 보였음

자료원 : 신화망

[http://www.news.cn/fortune/2022-10/26/c\\_1129081704.htm](http://www.news.cn/fortune/2022-10/26/c_1129081704.htm)

### 3 中, 1~9월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금액 12.9% 증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은 각각 1조 3,794억 위안(약 269조 원), 9,471억 위안(약 185조 원)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9%, 12.6% 증가하였음. 이 중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은 각각 7,824억 위안(약 153조 원), 5,503억 위안(약 107조 원)으로 각각 12.6%, 9.7% 증가함
- 업무 유형별로 보면 중국 기업이 수주한 해외 IT 아웃소싱(IT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KPO) 집행금액은 각각 2,411억 위안(약 47조 원), 914억 위안(약 18조원), 2,178억 위안(약 43조 원)으로 증가율이 각각 4.1%, 12.6%, 15.2% 임. 이 중 신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서비스, IT 솔루션 서비스,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 등의 아웃소싱 서비스는 각각 160.0%, 128.5%, 58.9% 급증함
- 국제시장을 보면 1~8월 미국, 중국(홍콩), EU로부터 수주한 아웃소싱 서비스 집행금액은 각각 1,179억 위안(약 23조원), 1,102억 위안(약 22조원), 700억 위안(약 1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1%, 17.3%, 14.1% 증가하였고, 상기 3개 지역의 집행금액 누계가 전체의 54.2%를 차지함

- 한편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주한 아웃소싱 서비스 집행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한 1,326억 위안(약 26조 원)이며, 이 중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국가로부터 수주한 아웃소싱 서비스 집행금액이 각각 102.0%, 59.6%, 31.6% 급증하였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2-10/27/c\\_1310671354.htm](http://www.jjckb.cn/2022-10/27/c_1310671354.htm)

## 4 中, 문화콘텐츠 기업 매출 회복세 지속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국 6.8만개 규모 이상(\*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 문화콘텐츠 기업의 1~9월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8조 6,459억 위안(약 1,688조 원)으로 집계됨
- 문화콘텐츠 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기업의 매출이 2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3.8% 하락했으나 3분기에는 3.7% 증가율을 기록
- 9대 문화콘텐츠 업종 중 문화장비 생산, 콘텐츠 제작·생산, 뉴스·정보 서비스, 문화산업 투자, 문화소비 단말기 생산, 문화제품 보조생산 및 중개서비스, 문화전파 채널 등 7대 업종의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7%, 4.5%, 2.4%, 2.0%, 1.2%, 0.6%, 0.5% 증가율을 보였음
- 일부 문화콘텐츠 신업종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디지털 출판, 오락용 스마트드론 제조, 웨어러블 스마트 문화설비 제조, 인터넷 문화오락 플랫폼, 문화산업 부가통신서비스 등 5개 업종이 각각 32.4%, 23.1%, 20.0%, 13.7%, 12.1%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ulture/gd/202210/31/t20221031\\_38201161.shtml](http://www.ce.cn/culture/gd/202210/31/t20221031_38201161.shtml)

## 5 中, 디지털 위안화 거래규모 1,000억 위안(한화 약 20조원) 돌파

-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디지털 위안화 거래량은 3.5억 건, 거래액은 1,000억 위안(약 20조원)에 달했고 디지털 위안화 사용 가능한 점포는 560만 개로 증가하였음. 디지털 위안화는 도소매, 요식·문화·관광, 교육·의료,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음

- 최근 인민은행은 선후하여 15개 성(省)의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개의 운영업체를 지정하였음
- 올해 시범지역에서는 30여차례의 디지털 위안화 소비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지방 정무서비스 플랫폼과 세금 및 의료보험료 환급, 빈곤가정 지원, 강소기업 지원 등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0/31/content\\_25946188.htm](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0/31/content_25946188.htm)

## 6 中,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예정

-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음
-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도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을 소비세 납세자로 간주하고 전자담배 생산(수입) 부문의 소비세는 36%, 도매 부문은 11%로 규정함. 납세자는 생산 또는 도매한 전자담배의 판매액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 업계에서는 이번 소비세 부과로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전자담배 판매업체 관계자는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상승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음

자료원 : 신화망, 중국상보

[http://www.news.cn/fortune/2022-10/25/c\\_1129079437.htm](http://www.news.cn/fortune/2022-10/25/c_1129079437.htm)

<https://www.zgswcn.com/article/202210/202210261737181064.html>

## 7 中,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 상승세 지속

- 중국내 리튬염 현물 가격이 10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하이강렌(Mysteel) 발표에 따르면 10월 27일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2,000위안(약 39만 원) 상승한 55만 5,000위안(약 1억 원)으로 치솟으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 편, 공업용 탄산리튬, 리튬금속, 수산화리튬의 가격도 소폭 상승하였음
- 귀타이쥘안(国泰君安) 애널리스트는 4분기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생산 확대로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일부 감소하여 탄산리튬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음

자료원 : 상하이증권보

<https://news.cnstock.com/news,bwqx-202210-4972050.htm>

## 8 다국적 자동차회사 스텔란티스(Stellantis), 중국생산 중단 검토中

■ 다국적 자동차회사인 스텔란티스 그룹의 CEO는 최근 열린 파리모터쇼에서 자산경량화 전략 중 하나로 자사 브랜드인 JEEP의 중국 생산 중단 감행을 언급함

\*자산경량화 전략은 자산을 유동화하고 운영권만 갖는 경영방식을 의미하며 완성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투자를 축소하고 이윤이 높은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여 기업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임

• 완성차 브랜드인 JEEP는 중국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본토 브랜드인 BYD, 웨이라이(NIO), 샤오핑(Xpeng), 리샹(Li Auto) 이나 독일의 폭스바겐에 비해 전동화·스마트화에서의 낮은 경쟁력이 이번 중국 생산을 중단 하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됨

• 스텔란티스그룹은 올해 3월 발표한 2030 전략계획에서 친환경 자동차 목표시장은 미국과 유럽이며 중국에서는 자산경량화 전략을 펼칠 것을 밝힌 바 있음. 동 그룹의 완성차 브랜드 인 시트로엥(CITROEN), 푸조(peugeot)도 JEEP 뒤를 이어 중국내 생산 중단을 고려할 예정임



▲생산중단 예정인 지프(JEEP)모델

자료원 : OF week

<https://nev.ofweek.com/2022-10/ART-71011-8420-30576833.html>